



新年辭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중재위원회 가족과 ‘언론 사람’ 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의 밝은 기운을 받아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큰 아픔을 겪고 갈등이 빈발한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는 몇 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으로 평년보다 8배 폭증한 2만 여 건에 달하는 기록적인 신청 사건을 처리함에 우리 모두의 힘을 합했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언론 전문가를 초청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거두는 데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중재위원 여러분과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편 우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피해구제제도를 새롭게 변화 발전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시대로 발전한 현재의 미디어 상황을 아날로그적 법제만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확산되는 침해적 뉴스에 의한 피해뿐 아니라, 인터넷에 축적되어 영구적으로 침해를 야기하는 위법한 기사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3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쟁 양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중재위원 여러분과 사무처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회 가족들과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元旦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박용상**